

일 NHK 북 미사일 오보, 전문가들 “오보로 전쟁 날 수도”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여부를 주시하던 전문가들은 지난 27일 새벽 일본 언론의 '북한 미사일 훗카이도 인근 해상 낙하' 오보에 일제히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센터(CNI) 한국담당국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가 기괴한 점”이라며 “기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엄청난 루머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NHK는 이날 오전 0시22분께 온라인판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훗카이도 동쪽 해상 2000km 부근에 낙하했다.”는 속보를 내보냈다가 이후 삭제한 뒤 “연습용 문장이 보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미국을 상대로 연말 시한을 위협해온 북한은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하며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었다. 이에 관련국 당국자들 및 전문가들은 최근 며칠 간 북한의 행동을 예의 주시해온 상황이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NIIS) 교수는 오보 정정 직후 즉각 트위터에 “미디어가 만든 틀린 알람이 있었다.”고 썼다. 앤킷 판다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도 오보 정정 직후 “망할 가짜 알람. 앞선 트윗들을 삭제한다.”고 썼다.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던 전문가들이 이번 오보에 실시간 반응했던 것이다.

안보 및 핵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오보로 인한 해프닝을 거론, “이런 특별한 때에는 이같은 가짜 알람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랑 교수는 특히 “백나인(골프 라운드 후반부)에 있던 트럼프가 안드로이드로 이 알람을 보고, 그 주변 누구도 이것이 틀렸다고 증명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며 “기억하라. 그는 대응 조치로 즉각 미국의 핵무기 발사를 명령할 수 있고,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칠레 정부 “K팝 팬들이 시위 부채질” 발표에 네티즌들 조롱

칠레 정부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영향을 미친 세력 중 하나로 K팝 팬들을 지목하는 보고서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보고서는 칠레 내무부가 작성해 최근 검찰에 제출한 112쪽 분량으로, 현지 일간 '라테르세라'가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칠레 정부는 보고서에서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을 도화선으로 시위가 격화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여간 소셜미디어 등에서 시위와 관련해 500만 명의 사용자가 쓴 게시물 6,000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게시물 중 19.3%가 칠레 밖에서 생산됐다며 시위 초기 외부 세력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보고서가 시위에 영향력을 미친 그룹을 제시하면서 해외 언론, 중남미 좌파 인사들과 함께 K팝 팬들을 지목한 것이다. 보고서는 시위 초기 8일간 400만

건 이상의 리트윗을 통해 시위 동참을 부추긴 인터넷 이용자들을 'K팝 팬들'이라고 명시했다. 이들의 게시물은 정부의 시위 사망자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권 침해를 언급하며, 언론의 침묵이나 소셜미디어 차단 등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정부가 시위의 원인이나 책임을 무시한 채 외부 세력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 소속 카를 카리올라 하원의원은 “정부는 K팝 팬 등에 책임을 씌우며 국내외적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에서도 조롱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K팝 그룹 멤버들의 공황 사진과 함께 “칠레 사회 혼란 주범들의 공황 독점 사진. 얼굴을 가렸다.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썼다. K팝 스타들의 손가락 하트 모양 그림과 함께 ‘새로운 혁명 인사법’이라고 쓴 네티즌도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북 도발 대비 군사력 과시 옵션 사전승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을 사전승인한 상태라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27일 'KBS'에 따르면 CNN방송은 전날 '성탄절은 북한의 선물 없이 지나갔지만 미 당국자들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부터 지상 무기 긴급훈련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옵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CNN방송은 어느 정도의 행동이 미국의 대응을 유발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당국자가 현재의 계획은 무력과시에 국한돼 있고 북한에 대한 직접적 군사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CNN의 이러한 보도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의 지난 17일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브라운 사령관은 당시 북한의 '성탄선물'로 장거리 미사일을 예상하면서 “(미국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가 될 수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2017년의 대북 무력시위 및 군사옵션 검토를 거론한 것이다.

CNN은 북한의 '선물' 없이 성탄절이 지나간 상황에서 미 당국자들이 계속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미 당국자들이 일부 무기 요소가 이동했다는 첩보 보고서에 기반해 북한의 '성탄 선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왜 무기 시험을 하지 않는 쪽을 택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 당국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 있는 1월 초까지 무기 시험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생일은 1월 8일이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